광주 3D 설계 전문가 집중 양성

테크노파크, 지멘스 코리아·다쏘시스템과 협약

광주 전략산업 자동차·금형 분야 65명 교육키로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금형 분야의 3차원(D) 제품설계 전문가 양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21일 3D분야 글로벌 기술기업인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사와 NX인증교육센터를 구축해 3D 제품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3D 솔루션 세계 1위 기업인 다쏘시스템과 3D 인재양성 협약을 맺었다.

유동국 원장과 권경렬 지멘스 코리아 사장은 이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광주지역 최첨단 3D 제품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멘스는 지난해 기준 총 10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1000만명 이상 제품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양 측은 지멘스의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 솔루션 NX의 제품수명주기관리(PLM ·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 인증교육센터를 광주테크노파크에 국내 최초로 설치해 광주지역 3D제품 설계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지멘스 코리아는 2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최첨단 3D 제품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멘스 NX는 3D융합 교육과정 뿐만아니라 3D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 기술협력,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도 함께 지원한다.

앞서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2월8일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3D 융합산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멘스 NX·다쏘시스템 등 3D관련 설계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인증교육센터 유치를 통해 광주의 자동차부품, LED, 의료기기 등 제조기반 사업들의 기기설계 및 디자인 콘텐츠가 결합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3월 초 1차로 다쏘코리아 프로그램의 자동차부품설계 전문가 20명, 지멘스NX의 금형설계 전문가 20명과 자동차·금형 전문기능인력 25명 등 총 65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3개월간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영섭 관세청장 광주 방문

주영섭 관세청장이 21일 광주본부세관을 방문했다. 주 청장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산지 사전검증을 비롯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총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복·김·미역·다시마·톳·해삼·홍합·넙치·능성어·관상어

전남도, 수산물 10대 수출 전략 품목 육성

전남도가 전복·김·미역 등 수산물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 집중 육성한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21일 수산분야 미래생명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산물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10대 수출 전략품목은 전복과 김·미역·다시마·톳·해삼·홍합·넙치·능성어·관상어 등이다.

전남도는 이들 품목에 대한 연구과제 52개 분야에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과학원 산하 15개 지소와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품목별 민·관·학·연 클러스터를 구성,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양식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생산·가공·유통 기능을 갖춘 규모화·기업화된 대규모 양식기지(양식 섬)를 조성해 대량 생산과 수출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수출 대상 국가별로 10대 전략품목의 소비수요 증가추세 등을 분석해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출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전복은 수출 지향형 가공식품 개발, 대량 폐사 저감기술 개발 등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벌인다.

해조류인 김·미역·톳·다시마는 우량종묘 기술 개발, 가공식품 개발, 수요국 기호에 맞는 맞춤형 제품 개발에 나선다.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은 우량 어미 확보, 우량종묘 조기생산,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해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겨냥한 수출전략 품종으로 육성한다.

이밖에도 기후 변화에 따라 달라진 수산 여건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R&D특구 진곡산단 분양 받으세요"

내일 오후 2시 하남산단 관리사무소서 설명회

인프라·접근성 우수 … 최대 연 13% 인하 혜택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중심지역인 진곡산단 분양설명회가 23일 광주 하남산단 관리사무소에서 열린다.

광주시도시공사(사장 홍기남)는 21일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진곡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광주 하남관리공단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진곡산단은 인접한 하남산단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가 인접해 접근성이 편리하다. 특히 평동·하남·진곡 산단을 잇는 외곽도로를 개설 중이어서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당 26만5282원(3.3㎡당 87만6960원)이다. 특히 사업준공 이전에 계약하면 연 6%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만약 3월21일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 23만662원(3.3㎡당 76만2520원)에 공급받을 수 있어 13%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분양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주시도시공사에서 받고, 입주계약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광주기술사업화센터에서 받는다. 분양계약은 입주계약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뒤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체결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주심사를 담당하는 광주기술사업화센터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해 분양가격, 분양절차, 준비서류 등 기업체 관심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분양 편의를 도모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www. gmcc.co.kr)를 참조하거나 062-600-6661~4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0억 미만 공사 발주 지역제한

광주시, 건설활성화 대책

광주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고자 지역제한 발주, 주계약 공동도급제 확대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관급공사 등에 지역업체가 60% 이상 하도급에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49%까지 가능하므로 입찰공고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제입찰 대상인 284억원 이상 공사를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평가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사용 자재 구매 때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조달청에 협조 요청하는 등 지역근로자와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 10억원이상 발주예정사업이 20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940억원에 달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신사옥 건립, 2015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등 굵직한 사업들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레미콘 업체 오늘부터 조업 중단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예정대로 22일부터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시멘트업계와 중소레미콘업계,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전날 지경부와 국토해양부 주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3자 대표들은 22일부터 3개 업계 대표들이 2주간 조정기간을 거쳐 최종 가격 협상안을 찾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코스피지수	2024.24 (-0.66)
▲ 코스닥지수	543.06 (+2.73)
금리 (국고채 3년)	3.47% (0.00)
▼ 원·달러 환율	1122.60원 (-0.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주영순 회장 재추대

목포상공회의소

주영순(사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제21대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목포상의는 21일 70여명의 상공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주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19·20대 회장을 역임했다. 3선의 주 회장 임기는 2015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주 회장은 "무안공항 활성화, 산업단지 추가 조성, 여수 해양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무안반도 통합 등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에는 김성모, 김호남, 노희웅, 이한철, 이혁영씨 등 5명이 선출됐다. 상임 의원에 고창회씨 등 20명이 뽑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